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044-414-1093)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국제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남궁아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namku003@kiep.go.kr, 044-414-1327)

차 례

1. 수교 이후 한·인도 경제관계 개관
2. 한·인도 경제협력의 성과
3.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4.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

주요 내용

- ▶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 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 ▶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핵심시장이자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한 중간재 중심의 대인도 수출구조가 정착
 - 한·인도 상호간에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 ▶ 인도의 높은 성장가능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 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방향과 인도의 육성 수요가 부합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 ▶ 향후 제조업·공급망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협력 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에 상기한 산업을 어젠다로 상정할 필요
 - 진영간 분절화가 첨예한 첨단기술·서비스 영역(통신장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인도의 시장 및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능성 발굴
 - 우리나라는 대인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0억 달러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중이며,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주목할 필요
 -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신뢰도 제고는 한·인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 수교 이후 한·인도 경제관계 개관

■ 한·인도 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1973년 12월 수교 이후 냉전이 지속된 1990년까지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음.
 -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집중했던 반면, 인도는 비동맹노선을 추구하여 한·인도 양국간 외교적 접점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 일본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했던 반면, 인도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내수지향적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양국 사이의 본격적인 경제관계 형성이 어려웠음.
- 냉전 종식과 함께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및 관세 감축, 투자제한 완화 등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본격화됨.
 - 당시 인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출범하여 동아시아와의 외교·경제 관계 강화로 눈을 돌림.
- 1996년 한국 정상이 최초로 인도를 국빈방문한 이래 경제는 양국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잡음.¹⁾
 - 인도정부는 한국을 '빠른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식했으며, 한국정부 역시 인도의 광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였음.
 - 1996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양국간 무역규모 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인도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100% 지분 투자를 승인함.
- 2009년 8월 서명하고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양국 경제관계의 분기점이 되었음.
 - 비슷한 시기 발효된 한국, 일본과의 FTA는 인도가 체결한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도 경제발전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²⁾
- 최초의 대인도 정책으로 평가되는 신남방정책(2017년) 이래 현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2022년)은 인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높아짐.

■ 1973년 수교 이후 한·인도 경제관계의 발전과정은 무역관계를 토대로 ① 1973~1990년, ② 1991~2002년, ③ 2003~2009년, ④ 2010년 이후로 구분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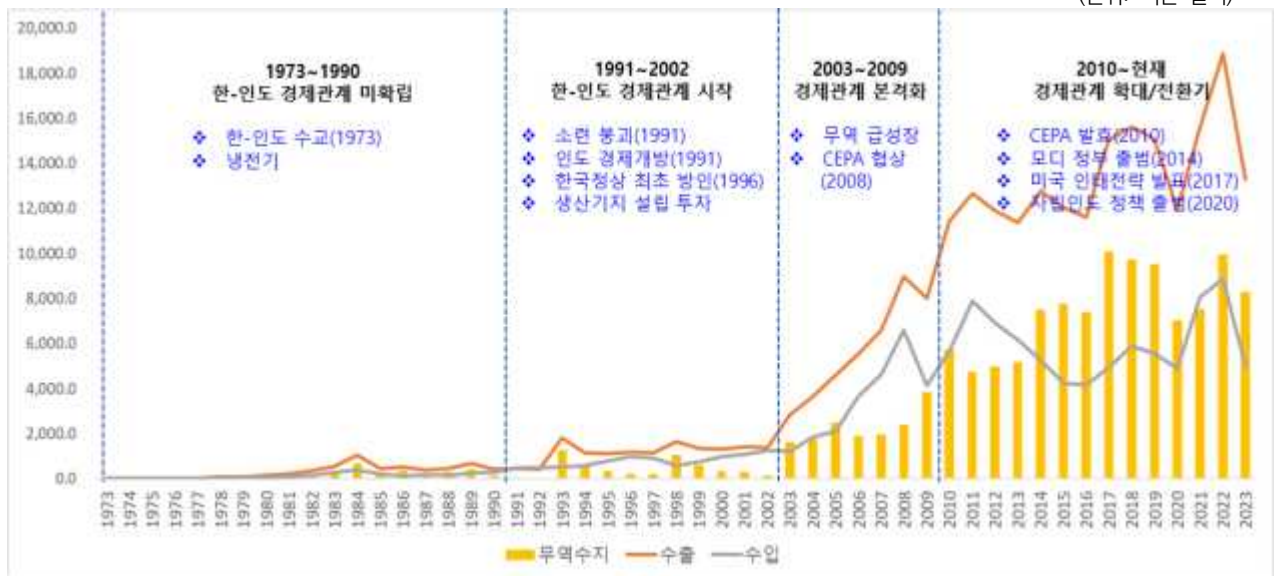
1) Cho, Wondeuk(2021), "The Role of a Korea-Indi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Indo-Pacific," in Lee, Kwon Hyung and Yoon Jae Ro eds., *The New Southern Policy Way Forwar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에 대인도 ODA 공여를 시작하면서 경제관계를 구축했으며, 1970년대 후반 인도정부의 국민차 프로젝트에 스즈키사가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양국 경제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 스즈키사는 인도의 핵심 자동차 기업으로 공고한 위상을 구축함.

- 1973~1990년: 수교 이후 냉전, 경제정책 차이 등으로 인해 양국간 경제관계 미확립
- 1991~2002년: 냉전 종식, 인도의 개방화와 더불어 양국간 경제관계 시작
- 2003~2009년: 한국기업들의 진출 확대와 더불어 양국간 경제관계 본격화, 한·인도 CEPA 협상(2008~09)
 -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2년 13억 8,410만 달러에서 2008년 89억 7,710만 달러로 증가
- 2010년~현재: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1월 1일)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지금의 구조를 형성
 -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114억 3,460만 달러에서 2022년 188억 7,010만 달러로 증가
 - 인도는 2022년 상품 무역 기준 우리나라의 제11위, 수출 기준 제8위 상대국
 - 중간재 중심의 한·인도 무역구조가 심화되고,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확대(2002년 약 100억 달러)
 -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과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으로 인도경제의 안정적 성장 도모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2017년)과 그에 이은 인도의 자립인도 정책(Atmanirbhar Bharat Abhiyaan, 2020년)은 인도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그에 발맞춘 인도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시사

그림 1. 무역을 중심으로 본 한·인도 경제관계 발전 과정

(단위: 백만 달러)



주: 2023년 무역은 1~9월 합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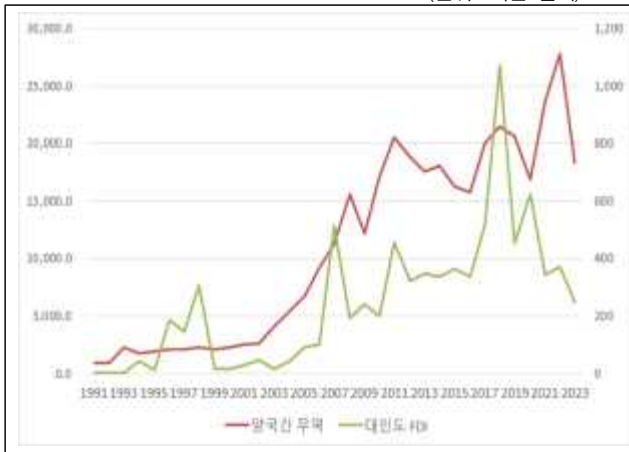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무역과 높은 상관관계(1991~2023년간 0.74)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한국 대기업이 현지 투자를 시작한 1996~98년간 활성화되어, 1998년 기준 3억 6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대인도 투자는 2007년 5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8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9년부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미·중 갈등의 첨예화에 따라 대인도 투자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함.
 - 미·중 갈등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은 2019년 이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조정기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112억 3,6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투자는 2021년 279억 3,700만 달러, 2022년 290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함.³⁾
- 인도는 2010~22년 누적 기준 한국의 제20위 투자 대상국으로, 누적 투자액은 57억 4,400만 달러임.
 -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가운데 제조업 부분은 2010~22년 누적 기준 78%를 차지함.

그림 2. 한국의 대인도 FDI와 양국간 무역

(단위: 백만 달러)



주: 1) 2023년 무역은 1~9월 합산, 투자는 1~6월 합산.

2) 좌축은 무역, 우축은 투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3. 11. 12.).

표 1. 한·인도 무역·투자 관계 개괄

항목	인도
상품 무역(2022년, 백만 달러)	27,767(11)
- 수출	18,870(8)
- 수입	8,897(17)
상품 무역수지(2022년, 백만 달러)	9,973
연평균 상품 무역 증감률(2010~22년, %)	4.1
- 수출	4.3
- 수입	3.8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 %)	2.0
- 수출	2.8
- 수입	1.2
한국의 FDI (2010~22 누적액, 백만 달러)	5,744(20)
한국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22 누적액, %)	1.0
- 제조업 비중	78.0

주: 무역(수출, 수입) 및 투자 항목의 괄호 안은 한국 기준 인도의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3. 11. 12.).

■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경제협력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전환기에 직면함.

- 미·중 패권경쟁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함.
 - 인도는 중국을 안보·경제 차원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형성 중
 - 모디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성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는 2022년 기준 GDP 세계 5위(약 3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2030년경에는 G3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한·인도 경제협력은 미·중 디커플링이 진전되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경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검색일: 2023. 11. 9.).

2. 한·인도 경제협력의 성과

가. 무역

■ 우리나라의 대인도 상품 무역 규모는 1991년 1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 206억 달러, 2022년 278억 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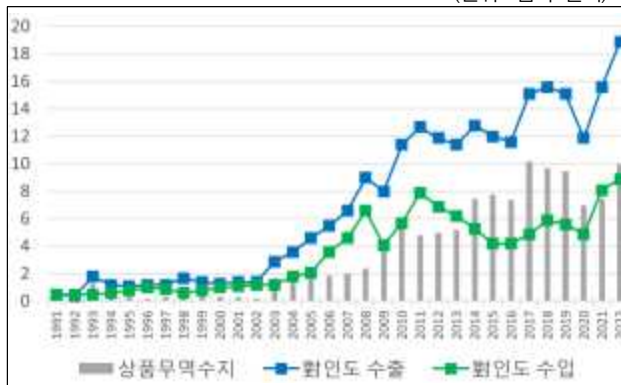
- 양국간 상품 무역은 200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를 계기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대인도 수출 규모가 수입을 앞지르면서 2022년 대인도 무역흑자 규모는 99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0~22년 기간 대인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연평균 무역증가율 3.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양국간 서비스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수입 규모가 유사한 성장세를 보임.

- 대인도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는 운송, 관광,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며, 수입 분야는 인도가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및 기타 사업서비스 등임(부록 표 1 참고).

그림 3. 한국의 대인도 상품 무역(1992~2022)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27.).

그림 4.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무역(2005~21)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TO stats(검색일: 2023. 11. 27.).

■ [주요국과의 비교] 대인도 상품 무역은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인도경제의 규모와 양국간 무역 잠재력을 고려할 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인도는 2022년 무역 규모 기준 한국의 제11위(2.0%), 수출 기준 제8위(2.8%) 상대국임.
 - 1991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중국 10억 달러, 인도 4억 7천만 달러, 베트남 2억 달러 등이었는데, 대중국 수출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고 대베트남 수출도 2010년 전후로 크게 증가하면서 인도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 1,558억 달러(23.0%), 베트남 610억 달러(8.9%), 인도 189억 달러(2.0%), 인도네시아 102억 달러(1.5%)

- 대인도 수입 역시 중국, 베트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22년 한국의 수입은 중국 1,546억 달러(21.0%), 베트남 267억 달러(3.7%), 인도네시아 157억 달러(2.2%), 인도 89억 달러(1.2%)

그림 5. 한국의 국가별 상품 수출 비교(199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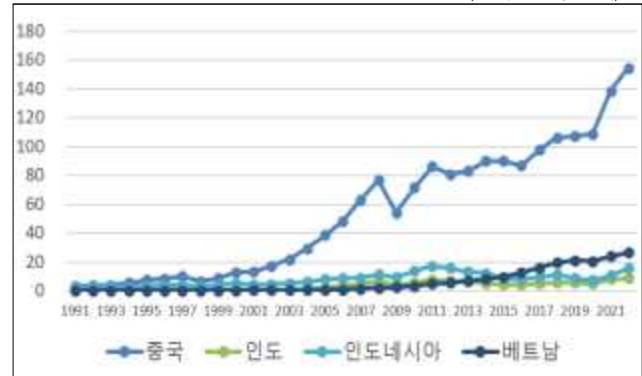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27.)

그림 6. 한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 비교(1991~2022)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27.)

■ [품목별 무역]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반도체, 철강, 합성수지 및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입은 석유제품(나프타)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알루미늄, 의약품 등으로 다변화됨.

- 대인도 수출 품목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일치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전기전자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과 연계되어 있음.
 - 대인도 반도체 수출은 2017년 6억 2,300만 달러에서 2022년 22억 7,300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선박의 경우 2022년 대규모 수출이 발생하였으나, 최근(특히 2014~21년) 대인도 수출은 부진했음.
- 대인도 수입 품목은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나프타를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이 여전히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알루미늄, 농약 및 의약품(의약품 및 정밀화학원료 중심), 사료 등 식물성물질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아짐.
 - 인도는 UAE, 러시아 등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나프타 수입 상대국임.

표 2.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0			2022		
	MTI3	품목명	금액 (비중)	MTI3	품목명	금액 (비중)
1	742	자동차부품	1,384 (12.1)	831	반도체	2,273 (12.0)
2	613	철강판	1,348 (11.8)	613	철강판	2,266 (12.0)
3	812	무선통신기기	830 (7.3)	214	합성수지	1,598 (8.5)
4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39 (6.5)	742	자동차부품	1,149 (6.1)
5	214	합성수지	738 (6.5)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980 (5.2)
6	133	석유제품	580 (5.1)	133	석유제품	940 (5.0)
7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478 (4.2)	812	무선통신기기	600 (3.2)
8	841	전력용기기	332 (2.9)	219	기타 석유화학제품	474 (2.5)
9	213	석유화학합성원료	309 (2.7)	211	기초유분	408 (2.2)
10	215	합성고무	281 (2.5)	626	아연제품	367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30.).

표 3.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MTI3	품목명	금액 (비중)	MTI3	품목명	금액 (비중)
1	133	석유제품	3,065 (54.0)	133	석유제품	2,679 (30.1)
2	421	천연섬유사	335 (5.9)	621	알루미늄	1,613 (18.1)
3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310 (5.5)	226	농약 및 의약품	652 (7.3)
4	621	알루미늄	198 (3.5)	013	식물성물질	569 (6.4)
5	013	식물성물질	162 (2.9)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289 (3.2)
6	228	정밀화학원료	120 (2.1)	625	연제품	262 (2.9)
7	211	기초유분	103 (1.8)	228	정밀화학원료	221 (2.5)
8	626	아연제품	102 (1.8)	742	자동차부품	175 (2.0)
9	119	기타 금속광물	95 (1.7)	421	천연섬유사	135 (1.5)
10	226	농약 및 의약품	90 (1.6)	441	의류	106 (1.2)

주: 괄호 안은 양국간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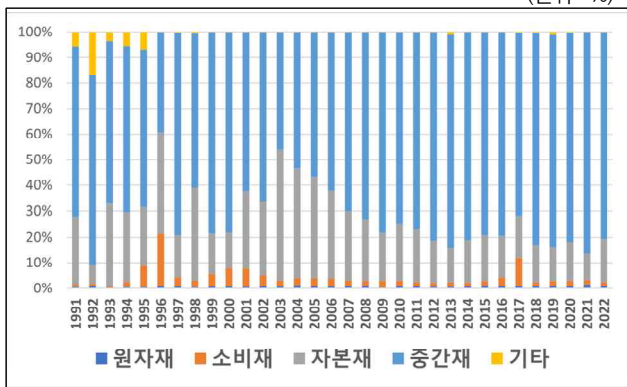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30.).

■ [가공단계별 무역] 대인도 수출은 한국 주력산업의 인도 진출과 연계되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정착되었으며, 수입 역시 인도가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음.

- 양국간 무역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인 중간재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대인도 수출입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함.
- 대인도 수출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중간재의 비중이 연평균 6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는 중간재 비중이 81%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이 철강, 합성수지 및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수요와 맞물려 있음.
 - 반면 자본재 수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며(2022년 17%),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대인도 수입은 1990년대 초 원자재와 중간재를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꾸준히 원자재 비중이 축소된 반면,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중간재 비중이 상승하여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2022년 85%).
 - 대인도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요인은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알루미늄, 의약품재료, 사료 등에 쓰이는 식물성물질의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이 분야에서 인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7. 가공단계별 대인도 수출 비중(199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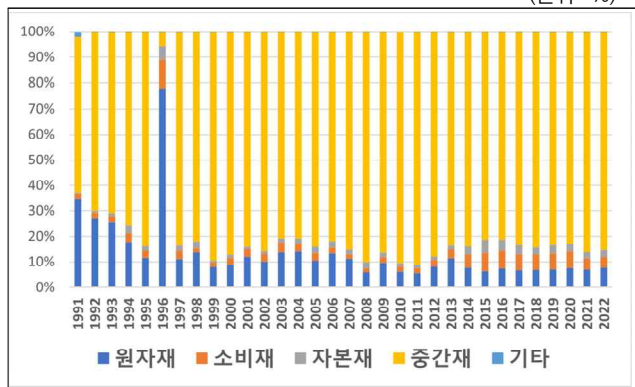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29.).

그림 8. 가공단계별 대인도 수입 비중(1991~2022)

(단위: %)



주: 1996년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쌀의 겨, 면, 냉동어육 및 기타 수산 식품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11. 29.).

■ [평가와 과제]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거대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잠재력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핵심 시장이자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 한·인도 CEPA 이후 한국의 대인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무역불균형이 확대되었고, 인도 측은 그 원인으로 한·인도 CEPA를 지목하여 개선협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인도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미·중 갈등,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주요 산업의 자국 내 생산역량 구축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장벽 강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무역장벽 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협력 분야 발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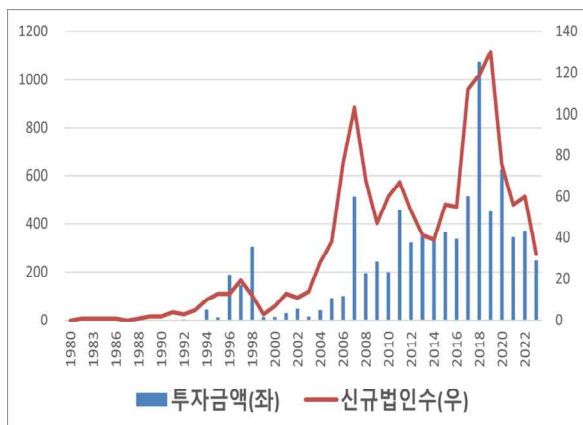
나. 투자

■ [한국의 대인도 투자]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FDI)는 2003~09년 기간, 2014~18년 기간에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에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음.

-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는 양국의 무역 급성장 시기(2003~09년)에 CEPA 협상과 함께 확대되면서 2007년 5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국내 법인세 인상⁴⁾ 및 인건비 상승⁵⁾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대인도 투자 역시 급성장하여 2018년에 역대 최고치인 10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이후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및 신기술 확보 경쟁으로 인해 대북미 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대인도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규모는 역대 최고점인 2018년 대비 65% 수준인 3억 7천만 달러임.
- 한국의 대인도 투자 규모는 대아시아 투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전체 누적 FDI 기준 중국(929억 4,400만 달러), 베트남(351억 6,300만 달러), 인도네시아(177억 3,800만 달러) 대비 저조한 수준(80억 1,800만 달러)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1%에 그침.⁶⁾

그림 9. 한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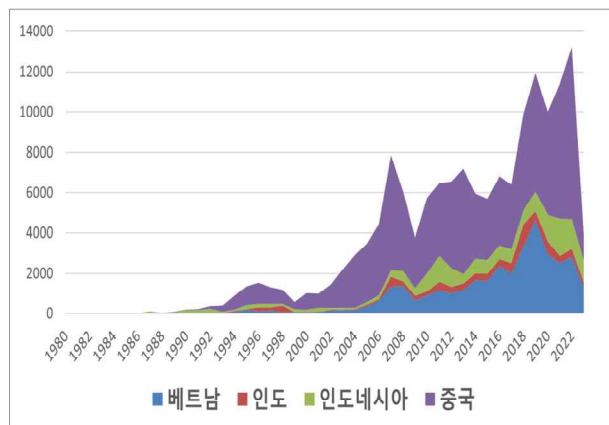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개)



주: 2023년 수치는 1~6월 합산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11. 14.).

그림 10. 한국의 대아시아 주요 국가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주: 2023년 수치는 1~6월 합산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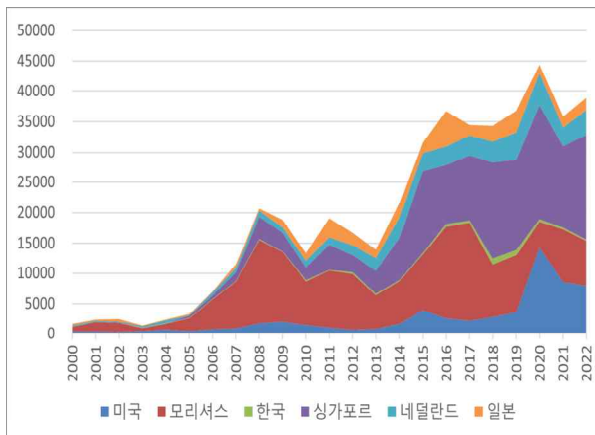
4) 2018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p 인상됨.
5) 2017년 7.3%였던 최저임금 상승률이 2018년에는 16.4%로 높아짐.
6) 1980~2023년 6월까지의 누적액임.

■ [세계의 대인도 투자]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정체 상태인 반면,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및 최근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대인도 투자는 증가 추세임.

- 대인도 해외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3위, 전체 해외투자 유입액의 0.88% 수준이며,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상위국은 모리셔스(25.5%), 싱가포르(23.4%), 미국(9.5%), 네덜란드(7%), 일본(6.2%) 순임.⁷⁾
- 인도는 경제개방 이후 국가자산매각(NMP)⁸⁾ 및 FDI 자동승인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함.
 -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6년 바지파이 총리 때부터 적극 추진되었으며, 현재 모디 정부는 국가자산매각(NMP)을 통해 교통, 공업,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자산 매각 및 공영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
 - 인도정부는 FDI 승인 시 정부승인과 자동승인으로 구분하며 은행, 방송 콘텐츠, 뉴스미디어 콘텐츠 등 정부승인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혹은 부분 자동승인을 허용
- 지정학적 분절 속에서 인도는 새로운 공급망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며 대인도 투자가 증가 추세임.
 - 대인도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규모는 2011~19년까지 평균 2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투자처로 떠오르며 2020년 8월에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182억 4,700만 달러를 달성
 - 대인도 해외포트폴리오 유입은 2023년 3월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섀넥스 지수 또한 2023년 3월 상승세로 전환되며 6월부터 여러 차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시장 상승세가 지속⁹⁾

그림 11. 주요국의 대인도 FDI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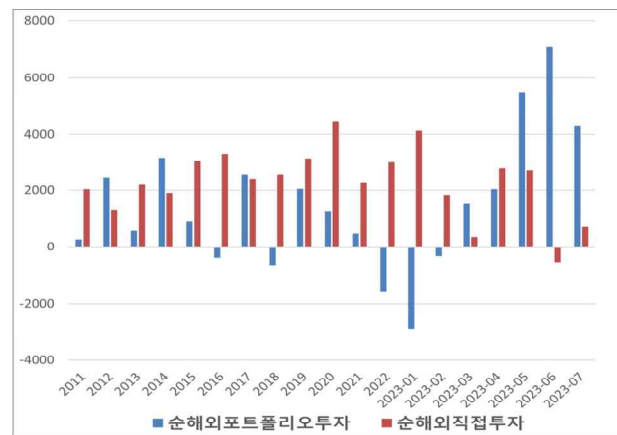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3. 11. 14.).

그림 12. 세계의 대인도 해외투자 유입

(단위: 백만 달러)



주: 회계연도 기준, 2011~22년까지 연평균 값(단, 2011년 수치는 3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값).
자료: CEIC(검색일: 2023. 11. 14.).

7)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의 2000년 4월~2023년 6월 누적 합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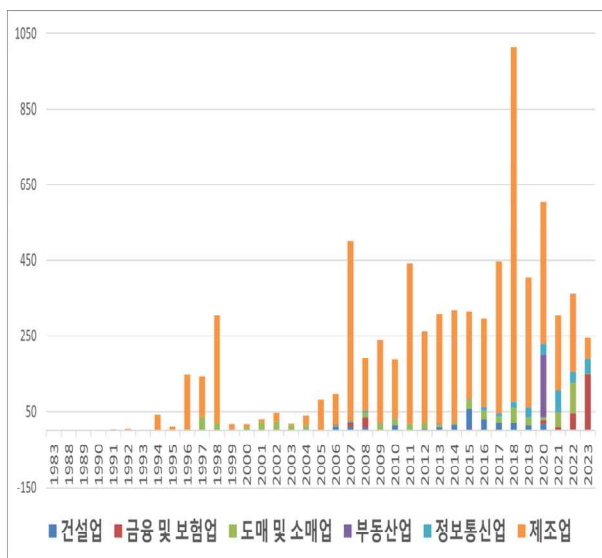
8) National Monetisation Pipeline: 국가를 브랜드화하여 자산 및 인프라에서 얻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 혹은 PPP 방식으로 진행됨.

9) 안성배 외(2023), 「2024년 세계경제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23-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별 투자]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편중 현상이 지속되다가 최근에 그 규모와 비중이 다소 축소된 반면, 세계의 대인도 투자는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90년대 중후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이후 대인도 투자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
 - △ 인도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1위, △ 현대자동차 수출 1위 및 내수 2위, △ LG전자 내수 및 수출(중동, 아프리카)용 주요 가전 내수 점유율 1위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성공적이었음.
 - 2019년 이후 제조업 투자가 축소되며 상대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증가함.
 - 세계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서비스 및 제조업 모두 포함), 인프라 및 기타 건설, 자동차 산업 등 분야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상승하여 누적 투자액 기준 1위인 서비스업과 2위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약 1.5%p 근소한 차이를 보임.
 - 2000년 4월~2010년 11월까지 인도의 FDI 누적 합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비중은 8%였으나, 2023년에 14.86%로 비중이 크게 늘어남.
 - 인도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함께 국내 산업 육성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 및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 등이 제조업 분야 투자 유입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3. 주요 분야별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23년 수치는 1~6월 합산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11. 14.).

표 4. 주요 분야별 세계의 대인도 FDI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누적투자액 (백만 달러)	비중(%)
1	서비스업	105,400.88	16.33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95,879.72	14.86
3	무역	40,056.28	6.21
4	통신	39,279.21	6.09
5	자동차	35,149.30	5.45
6	인프라 및 기타 건설	30,515.85	4.73
7	건축 및 개발	26,383.24	4.09
8	계약	21,554.07	3.34
9	화학	21,487.83	3.33
10	금속	17,325.38	2.68
	기타	212,475.66	32.89
	합계	645,507.42	100

주: 2000년 4월~2023년 6월 누적 합계 기준임.

자료: DIPP(검색일: 2023. 11. 14.).

■ [평가와 과제] 인도가 경제성장 가능성,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로서 급부상하는 가운데,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인도 투자 분야 발굴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인도는 △ 2022년 해외직접투자 유입량 세계 8위, △ 그린필드 투자 건수는 1,008건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¹⁰⁾ 건수는 187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 중임.¹¹⁾
-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와 인도의 육성 수요가 부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도의 육성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산업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 반도체 제조업 육성정책(2022년), △ 전기차 지원 보조금정책, △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VGF¹²⁾ 제공, △ 신재생에너지 분야 100% FDI 허용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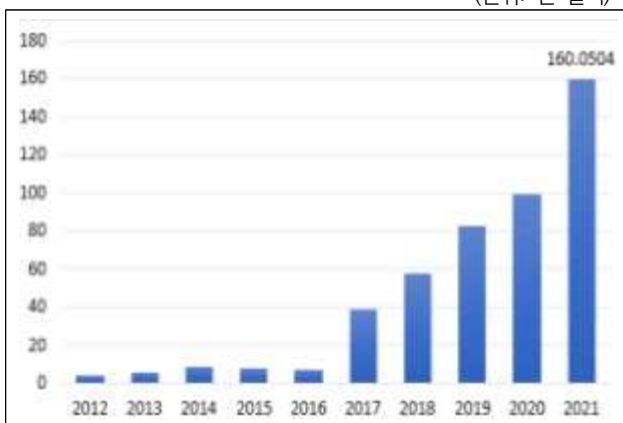
다. 경제 파트너십

■ [ODA] 2017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인도 ODA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 기술·환경·에너지, △ 공공행정, △ 교육 등임.

- 인도는 최근 4~5년 사이에 경제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G7 이외 국가들에서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함.
- 한·인도 ODA는 2017년에 공식화됐으며, 2022년 한국정부는 인도를 제3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함.
- 대인도 무상원조 규모는 2012년 약 4만 달러에서 2021년 약 160만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함.
 - 2017년부터 대인도 무상원조 지원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4. 한·인도 ODA 지원액(20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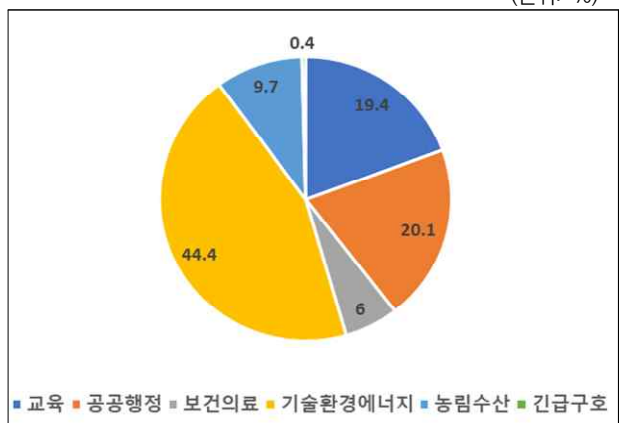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KOICA 오픈데이터 포털(검색일: 2023. 11. 20).

그림 15. 분야별 대인도 ODA 비중(2012~21)

(단위: %)



주: 지원액 누계(2012~21) 기준.

자료: KOICA 오픈데이터 포털(검색일: 2023. 11. 20).

10)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deal.

11) UNCTAD Investment Report 2023.

12) Viability Gap Funding: 수익성과 상관없이 중요성이 높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임.

■ [ODA 사업] 한국정부는 2021년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유무상 원조사업을 진행함.

- 대인도 무상원조 ODA 사업은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임.
 - 한국의 대인도 무상원조는 기술·환경·에너지(44.4%), 공공행정(20.1%), 교육(19.4%), 농림수산(9.7%), 보건 의료(6%) 등의 분야가 중심임.
 -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KOICA와 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 인도의 중소기업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 중소기업 교육훈련,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ICT 부트캠프 신설’, ‘스타트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¹³⁾
 -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사업] 인도정부의 ‘Skill India’ 전략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을 통해 미래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함.¹⁴⁾
- 2021년 처음으로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을 위한 유상원조 사업이 승인됨.
 -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MS) 및 교통관리센터(TMC) 신설, △ 통행 요금 징수시스템(TCS) 구축,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모델 구축을 통해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023년 한국 수출입은행(EDCF)은 2022~24년도 중장기 운용방향에서 대인도 중점협력 분야로 그린·디지털·보건을 선정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기본약정협정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5. 부차별 대인도 자원사업 목록

(단위: 억 원)

분야	사업명	사업명	구분	기간	2023년 확정액 /총규모
ICT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2020~24	4.2 /28.3
교통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양자유상	2022~27	119.4 /2,084.5
		위험공유 퍼실리티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사업	양자유상	2023~38	39.3 /1,214.7
기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2021~23	5.6 /24.2

주: 2023년 기준 주요 양자원조 프로젝트 목록.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3. 11. 20.).

■ [한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류와 연계한 대인도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름.

- 인도 내 한류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인도 전역에서 선호도가 높아짐.¹⁵⁾
 - 과거 한류는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같은 몽골 계통에서 비롯된 외모적 유사성과 힌두문화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를 바탕으로 소비됨.

13) KOICA, 「ILO를 통한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2020-2024/238.3만불)」(검색일: 2023. 11. 22.).

14) KOICA,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2021-2023/200만불)」(검색일: 2023. 11. 22.).

1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인도 한류 심층분석」(검색일: 2023. 11. 23.).

- 코로나19 기간 인도에서는 OTT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국 드라마 및 영화와 같은 한류 콘텐츠의 소비량이 급증함.
 - 2020년 인도의 넷플릭스 K-드라마 수요는 전년대비 370% 증가했으며, '오징어게임'의 경우 28주 동안 10위권 콘텐츠로 선정됨.¹⁶⁾
 -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84% 이상이며, 콘텐츠별 호감도는 영화(93.7%), 드라마(92.2%), 음악(90.8%) 등의 순으로 높음.¹⁷⁾
- '발리우드'와 같이 문화 인프라가 강한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의 현대성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은 한류의 주요 인기요인으로 판단됨.¹⁸⁾
- 2022년 주인도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의 한국어 수업에 대한 수요는 2020년 대비 400% 증가, 2021년 대비 30% 증가함.¹⁹⁾
 - 주인도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델리대학교 모티날 네루 대학(Motinal Nehru College)에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 MOU를 체결함.

■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뷰티·패션·식품과 같은 한국 소비재의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도시장에서 K-뷰티·패션·식품의 인기가 높아짐.
 - 인도내 K-뷰티 커머스 플랫폼인 '마카롱' 운영사 블리몽키즈는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함.²⁰⁾
 - 고피자(gopizza)는 한류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음.²¹⁾
- 한국정부는 한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KOTRA는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소비재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K-Lifestyle in India'를 개최함.²²⁾

■ [기술협력] 최근 협력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양국간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분야는 향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임.

- [과학기술] 한·인도 과학기술협력 협정(2006년 개정)을 바탕으로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연구, 인력교류,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한·인도 과학기술 공동기금(5년간 1,000만 달러) 조성 과 시행에 합의한 이후 2014년부터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³⁾
 - 인도정부는 신동방정책에서 강조하는 3C(Culture, Commerce, Connectivity)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술협력을 중시함.
 - 2010년 벵갈루루 인도과학원(IISc)에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IKIST)를 개설하여 양국 학자간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²⁴⁾

16) KITA, 「인도, 한류 열풍 K-내구소비재로 확산」(검색일: 2023. 11. 22.).

17) KOFICE,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검색일: 2023. 11. 30.).

18) KOTRA, 「한류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印度), 한류 열풍을 인도(引導)하다」(검색일: 2023. 11. 23.).

19) KOCIS, 「인도 한국어 학습 열풍, '인도 명문 델리대학교 한국어 수업 개설」.

20) 머니투데이(2023. 7. 14.), 「13억 인도인 홀린 K뷰티 플랫폼 '마카롱', 40억원 투자 유치」(검색일: 2023. 11. 23.).

21) Platum, 「인도에서 매출 500% 상승 '고피자', 15호점 오픈」(검색일: 2023. 11. 23.).

22) KOTRA, 「2023 인도 소비재 대전 기업 모집 공고(부산)」(검색일: 2023. 11. 23.).

23) KISTI(2006. 2. 6.), 「한·인도 과학기술협력 본격 출발」(검색일: 2023. 11. 27.).

-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11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2018년에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첨단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해 2020년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를 뉴델리에 설립함.
- [ICT] 2022년 우리 정부는 2018년 체결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제1차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개최함.²⁵⁾
 - 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및 인도의 디지털 전환기조에 대해 공유했으며, 아울러 인공지능·인력 양성·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성과 등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2014년 인도 벵갈루루에 한·인도 SW 상생협력센터를 건립하고, 한국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마케팅 및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벵갈루루 현지 진출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함.²⁶⁾
- [국방] 양국은 2013년 제1차 한·인도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 이후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5년 양국의 국가안보실간 대화인 '전략대화'를 신설했으며(2023년까지 4회 개최), 2019년에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교류와 방산협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 2019년 인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해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확대하고 국방교육을 심화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인도가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면서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²⁷⁾
 - 2005년 양국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국은 2021년까지 총 아홉 차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²⁸⁾ 2020년에 '한·인도 방산협력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향후 방산부문 공동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²⁹⁾

3.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가. 생산

■ [생산 기여] 한국과 인도 각국의 생산에 대한 상호 기여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 내 생산에 투입되는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액은 2010년 기준 약 104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26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함.

24)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는 인도과학원뿐만 아니라 뭄바이 인도공과대학(IIT 봄베이), 부바네스워르 인도공과대학(IIT 부바네스워르), 자와하르랄 네루 고등과학연구센터(JNCASR)와도 교류하고 있음. 2023년 8월 한·인도 협력센터 연구진은 맥신(MXeNe)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 연합뉴스(2023. 9. 18.), 「인도, 과학기술협력 최적 파트너...장기적 신뢰 쌓아야」,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7.).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12. 15.), 「제1차 한·인도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11. 27.).

26) 정보통신신문(2021. 11. 17.), 「NIPA, '인도 벵갈루루 현지 진출 지원협의회' 구성」,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7.).

27) 인도의 민간기업 라르센&투브로(L&T: Larsen and Toubro)는 한화와 K-9 바즈라 자주포 인도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최근 조선기술 이전과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Abhijit Sing(2022. 7. 4), 「인도-한국 간 전략적 유대관계의 재활성화 - 해양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KIMS Periscope 제28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The Guru(2023. 5. 31.), 「한화오션, 인도에 3000t급 잠수함 제안...7조 수주전 정면승부」,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1. 24.).

28) 방위사업청(2021. 10. 20.), 「제9차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11. 27.).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3. 26.), 「국방장관,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3. 11. 24.).

- 2022년 인도 내 생산에 기여하는 해외국가 가운데 한국은 6위로서, 이는 기존의 독일, 일본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 생산에 기여하는 인도의 부가가치 기여액은 2010년 기준 92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2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인도의 대한민국 생산 기여 수준은 2010년 13위에 머물렀지만, 2022년 9위로 변화함.

표 6. 인도 내 생산의 해외 기여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호주	41,793.0	8.4	미국	130,571.6	10.0
2	미국	36,720.0	7.4	중국	118,480.0	9.1
3	중국	34,102.7	6.9	러시아	82,316.9	6.3
4	독일	18,844.4	3.8	인도네시아	45,971.5	3.5
5	일본	13,768.5	2.8	호주	42,349.9	3.3
6	인도네시아	12,926.3	2.6	한국	26,543.2	2.0
7	브라질	12,570.1	2.5	독일	26,482.1	2.0
8	러시아	10,700.9	2.2	영국	26,027.1	2.0
9	한국	10,412.6	2.1	프랑스	23,459.3	1.8
10	영국	9,914.0	2.0	일본	22,940.9	1.8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 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7. 한국 내 생산의 해외 기여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83,459.3	11.9	중국	201,174.2	18.5
2	일본	81,491.2	11.7	미국	164,754.1	15.1
3	미국	57,744.2	8.3	일본	63,440.1	5.8
4	호주	39,920.1	5.7	호주	55,990.8	5.1
5	러시아	30,924.7	4.4	러시아	40,495.8	3.7
6	인도네시아	23,980.7	3.4	독일	29,473.8	2.7
7	독일	20,808.4	3.0	인도네시아	23,876.6	2.2
8	대만	13,223.5	1.9	영국	21,239.0	2.0
9	브라질	10,971.2	1.6	인도	21,002.9	1.9
10	말레이시아	10,358.3	1.5	프랑스	15,927.8	1.5
	인도 (13)	9,214.1	1.3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 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한·인도 양국 생산에 대한 상호간의 기여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중은 최근 소폭 감소함.
- 인도 생산 내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3.2%를 달성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2년에 2.0%를 기록했는데, 인도 생산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활용성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 한국 생산 내 인도의 부가가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2.4%를 기록하였지만, 2022년 1.9%로 하락함.

그림 16. 한·인도 생산 기여 추이(2010~2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DB-MRI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17. 한·인도 생산 기여 비중 추이(2010~22)

(단위: %)



자료: ADB-MRI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산업별 생산 기여] 한·인도 양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생산에 서로 기여 중이나, 최근 사업서비스 생산부문의 양국간 연계성이 높아짐.

- 인도의 부가가치는 주로 한국 제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인도의 대한국 총생산 기여액 대비 제조업에 대한 기여 비중은 2010년 67.1%에서 2022년 56.1%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생산 기여 비중은 같은 기간 14.0%에서 25.6%로 증가함.
 - 인도의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과거에는 전기장비, 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 주로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대한 기여가 크게 성장함(부록 표 2 참고).
- 한국의 부가가치 역시 인도의 제조업 생산에 주로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인도 내 서비스 산업 생산에서의 활용이 크게 확대됨.
 - 한국의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의 제조업은 인도 건설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도가 높아짐(부록 표 3 참고).

표 8. 인도·한국 산업별 생산 기여도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한국 생산				한국의 대인도 생산			
	2010		2022		2010		2022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생산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144.9	1.6	352.7	1.7	361.1	3.5	1042.7	3.9
제조업	6,183.6	67.1	11,785.1	56.1	6,985.0	67.1	13,686.2	51.6
공공사업건설업	976.4	10.6	1,737.4	8.3	1,385.6	13.3	4,102.5	15.5
사업서비스업	1,280.2	13.9	5,413.4	25.8	1,458.8	14.0	6,789.5	25.6
개인서비스업	629.0	6.8	1,714.4	8.2	222.0	2.1	922.3	3.5

주: 각 산업은 기여 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나. 수출

■ [수출 기여] 한국과 인도 수출 내에서 상호 부가가치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함.

- 인도 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0년 기준 약 12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37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함.
 - 2010년 한국은 인도 수출 기여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지만, 2022년에는 6위로 상승함.
- 한국의 수출에 포함된 인도의 부가가치는 2010년 기준 약 23억 달러에서 2022년 약 5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한국 수출에 대한 주요 기여국 중 인도는 2010년 14위에서 2022년에는 9위로 상승함.

표 9. 인도 수출의 해외 기여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5,341.0	9.0	미국	18,371.0	10.3
2	호주	4,414.1	7.4	중국	16,507.4	9.2
3	중국	3,815.1	6.4	러시아	10,817.9	6.1
4	독일	2,357.2	4.0	호주	6,115.5	3.4
5	브라질	1,872.8	3.1	인도네시아	5,953.6	3.3
6	일본	1,524.4	2.6	한국	3,723.6	2.1
7	영국	1,254.2	2.1	독일	3,676.2	2.1
8	프랑스	1,240.9	2.1	영국	3,668.9	2.1
9	인도네시아	1,197.5	2.0	프랑스	3,387.5	1.9
10	한국	1,194.2	2.0	일본	3,178.3	1.8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 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10. 한국 수출의 해외 기여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24,120.6	13.2	중국	61,809.0	17.9
2	일본	23,455.2	12.8	미국	49,015.0	14.2
3	미국	14,611.7	8.0	호주	20,057.2	5.8
4	호주	10,017.3	5.5	일본	19,603.4	5.7
5	러시아	7,878.3	4.3	러시아	1,3251.1	3.8
6	독일	5,825.7	3.2	독일	8,924.4	2.6
7	인도네시아	5,805.4	3.2	인도네시아	6,806.0	2.0
8	대만	4,375.4	2.4	영국	5,683.2	1.6
9	말레이시아	2,653.6	1.4	인도	5,298.0	1.5
10	브라질	2,455.1	1.3	대만	4,747.6	1.4
	인도(14)	2,249.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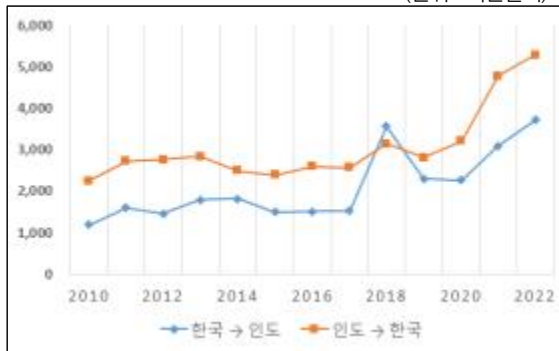
주: 비중은 생산·수출 기여 상대국의 전체 해외 생산·수출 기여액 대비 해당 생산·수출 기여국의 생산·수출 기여액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한·인도 양국 수출 내 포함된 상호간의 부가가치 투입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최근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인도의 대한민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2016년 3.0%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1%로 감소하였고, 이는 최근 인도 수출 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활용 증가에 따른 인도 수출 내 한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의 상대적 하락에 기인함.

그림 18. 한·인도 수출 기여 추이(2010~22)

(단위: 백만달러)



자료: ADB-MRI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19. 한·인도 수출 기여 비중 추이(2010~22)

(단위: %)



자료: ADB-MRIO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산업별 수출 기여] 한국과 인도는 양국 제조업 수출에 주로 서로의 부가가치를 활용하지만, 최근 인도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 한국은 인도의 제조업 수출에 대한 기여 비중이 소폭 상승함.

- 한국 수출에 포함된 인도의 부가가치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그 비중은 2010년 92.5%에서 2022년 87.7%로 하락하였고, 그에 비해 한국 사업서비스업 수출에 포함된 인도의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6.7%에서 11.9%로 증가함.
- 최근 한국의 자동차, 전기장비 등의 수출에서 인도의 1차 금속산업의 부가가치 활용이 확대되었는데(부록 표 4 참고), 이는 기존 한국 제조업 수출의 인도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심의 활용과는 차이를 보임.

표 11. 인도·한국 산업별 수출 기여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인도의 대한민국 수출				한국의 대인도 수출			
	2010		2022		2010		2022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수출 기여도	비중
농업/광업	2.2	0.1	6.9	0.1	29.6	2.5	105.7	2.8
제조업	2,080.2	92.5	4,645.2	87.7	874.2	73.2	2,756.1	74.0
공공사업건설업	8.1	0.4	6.6	0.1	4.1	0.3	8.3	0.2
사업서비스업	151.3	6.7	628.7	11.9	273.9	22.9	835.3	22.4
개인서비스업	8.0	0.4	10.7	0.2	12.5	1.0	18.3	0.5

주: 각 산업은 기여 상대국의 산업을 의미함.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인도의 제조업 수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3.2%에서 2022년 74.0%로 증가함.
- 최근 인도는 1차 금속,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장비, 전기장비,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산업 수출에 있어 한국의 1차 금속, 전기장비,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주로 활용함(부록 표 5 참고).

다. 평가와 과제

■ [주요 특징] 한국과 인도 양국의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양국 부가가치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됨.

- 한·인도 양국의 생산과 수출에서 상호간에 절대적인 기여액과 순위가 상승함.
 - 다만 최근 양국의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여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양국 생산과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부가가치 활용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에 기인함.
- 한편 양국 생산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의 인도 서비스산업 생산 투입 증가와, 수출 측면에서 인도 제조업의 한국 제조업 수출 투입 확대가 양국 생산 및 수출 연계 관계의 주요 변화임.

■ [발전 방향]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인도의 경제·외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인도 양국의 생산과 수출 연계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인도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인도 역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제조업은 인도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도 산업 전반에서 한국 제품 및 산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 파악이 필요함.
- 한편 한국 제조업 수출에서 인도산 중간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 제조업 내 인도 중간재 활용 현황 모니터링과 잠재적 인도 중간재 활용품목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생산에 필요한 해외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할 것임.

4.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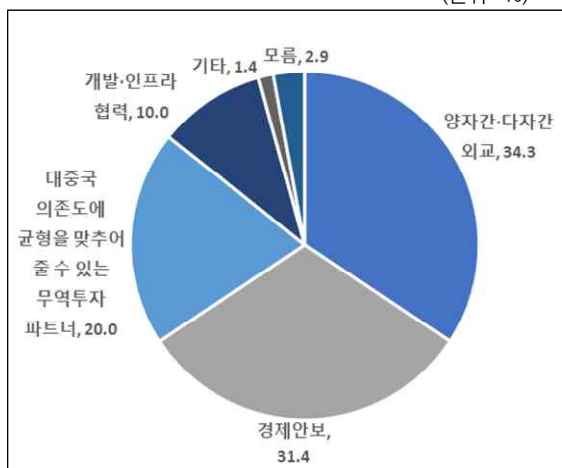
■ [한·인도 경제협력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거대시장 및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인도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 CEPA는 한·인도 경제협력의 분기점으로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생산 네트워크가 정착됨.
- 인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KIEP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전문가 대부분이 '향후 5~10년간 인도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³⁰⁾

- 미·중 갈등의 지속에 따른 주요 산업의 디리스크킹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잠재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KIE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배경하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이 81.3%에 달함.
- 양국 전문가 모두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 영역으로 △ 경제안보, △ 대중국 의존도 완화, △ 양자 및 다자 간 외교를 꼽음(그림 20, 21 참고).

그림 20. 한·인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
(인도 측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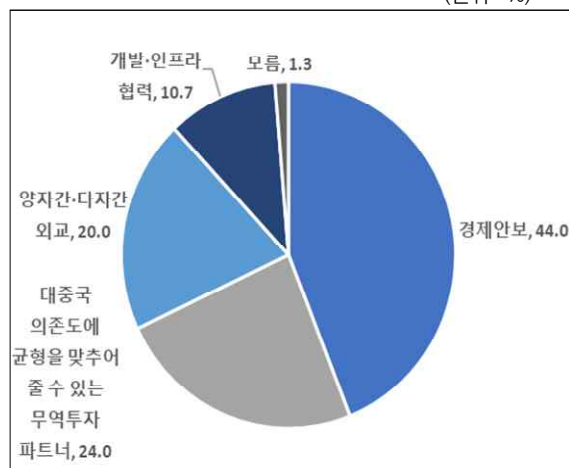
(단위: %)



주: 인도 전문가의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그림 21. 한·인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
(한국 측 응답)

(단위: %)



주: 한국 전문가의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 지속성 있고 호혜적인 한·인도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함.

- 인도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전략적 환경하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G3로 부상할 가능성, 민주주의 가치 공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완화, 최근 강화되는 대미국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인도와 접점을 가짐.
 - 다극화되는 세계질서하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 레버리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있으며, 한국 인도태평양전략이 추구하는 '기여외교'에서도 주요 대상 국가임.
-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전략적 위상 상승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호흡으로 포괄적인 대인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한 신뢰 구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한·인도 경제협력 과제] 제조업·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협력 분야의 호혜적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인도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 육성으로서,³¹⁾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인도 협력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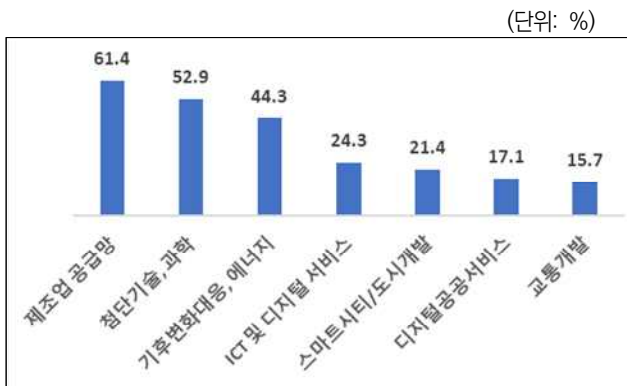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3년 6~8월에 실시한 인도 전문가 70인, 한국 전문가 75인(경제·외교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김경훈, 백종훈, 남유진(2023, 발간 예정),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

31)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의 총부가가치(GVA)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최근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고용 및 경제성장 측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KIEP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남(그림 22, 2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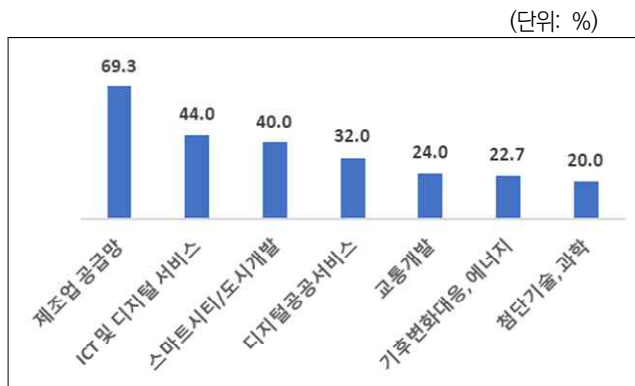
-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대중 리스크 완화, 생산기지 다변화, 시장 확대, 혁신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임.
-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업 육성, 대중 경제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의 핵심산업은 지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하며, 현재 한국의 대세계 수출과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기도 함.
-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한·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중요함.
 - 인도는 제조업 육성 이외에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원 대체, 인프라 개발³²⁾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협력 수요가 많음.
 -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도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중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이자 인프라 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

그림 22. 인도의 성장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인도 측 응답)



주: 인도 전문가의 1~3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그림 23. 한국의 대인도 유망 경제협력 분야 (한국 측 응답)



주: 한국 전문가의 1~3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 [주요 분야별 정책제언] 한·인도 양자간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무역·공급망]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의 열쇠는 무역장벽 완화와 더불어,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컨셉을 바탕으로 한 협력 이니셔티브 발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쟁점이 되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인도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 측에 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3절 참고).

에서 제조업 육성은 인도정부의 최대 과제임. India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32) 인도정부에 따르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40년까지 약 50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India Ministry of Finance (2017), *Economic Survey 2017-18*.

- 2023년 G20을 계기로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한 결과, 양국은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경제단체인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할 방침으로, 상기한 전략산업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³³⁾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인도의 대외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으로, 한국이 기업 투자, ODA 등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임.
 -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이에 따른 시장(발전 등 1차 수요와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수요)의 높은 성장 가능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필요성 등 인도와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협력 분야는 잠재력이 큼.³⁴⁾
 -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정례적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으로, 한·인도 에너지대화를 설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모색해야 함.
- [첨단기술] 진영간 분절화가 첨예한 영역으로, 인도의 시장 및 전략 파트너로서의 잠재력이 큼.
 - 우선적으로 대인도 협력을 모색해볼 영역은 통신장비부터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영역, 사이버 보안,³⁵⁾ 그리고 공공서비스 디지털화³⁶⁾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금융, 헬스케어, 교육, 게임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협력 수요가 매우 많으므로,³⁷⁾ 상기한 한·인도 정부간 장관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에 이 분야를 어젠다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ODA] 인프라를 비롯한 개발협력은 인도의 방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이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임.
 - 인도는 최근 인프라 등 경제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ODA를 받기 시작했으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 인(NIP), 재난복원 인프라 개발, 북동부 지역 개발,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수요가 높음.³⁸⁾
 - 대인도 ODA 유망 분야에 대한 KIE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전문가들은 △ 교통인프라, △ 상하수도 인프라, △ 행정 및 거버넌스 순으로 응답했고, 인도 전문가들은 △ 교통 인프라, △ 에너지 인프라, △ 과학기술을 꼽음.³⁹⁾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영역으로, 한국의 지원에 대한 인도의 호응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인도에서 형성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⁴⁰⁾ KSP 사업을 통해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경제 활성화, 무역촉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인도에 전달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3) 「윤, 비란세 장벽 대응 등 인도 교역 확대 기반 구축·첨단기술 협력도」(2023. 9. 10),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0_0002444563&cID=10301&pID=10300(검색일: 2023. 9. 11.).

34) 자세한 내용은 한형민, 김정곤, 김도연, 백종훈, 김소은(2022),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35) 2021년 기준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사이버범죄 경험자의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음. ICRIER(2023), *State of India's Digital Economy*.

36) 예컨대 인도는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왔지만, 세관신고의 전자적 교환, 원산지 증명의 전자적 교환, SPS 인증서의 전자적 교환 등 국경간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UN Global Survey on Digital and Sustainable Trade Facilitation.

37)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나승권, 이재호, 윤지현, 김은미(2020), 『신남방 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38)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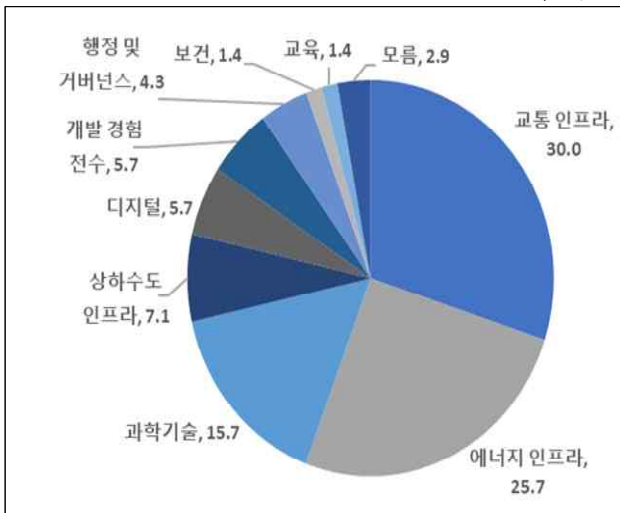
39) 인도에 대한 ODA 가운데 교통 등 경제 인프라 분야가 약 60%를 차지함(2020~21년 평균). OECD, Aid at a Glance charts.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검색일: 2023. 10. 23.).

40)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제 강국(44.3%)', '글로벌 대기업을 가진 브랜트 강국(18.6%)',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한 민주국가(18.6%)' 등을 꼽음(1순위 응답 기준). 또한 1~3순위 누적된 응답 수를 기준으로 보면, 'ODA 신흥 공여국', '우수한 인적자원', '문화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 또 하나 강조할 영역은 제조업 진출 기반 구축 관련 사업으로, 인도 내 산업단지 조성, 인력 교육 등을 위한 ODA 활용 역시 검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그림 24. 대인도 ODA 유망 분야(인도 측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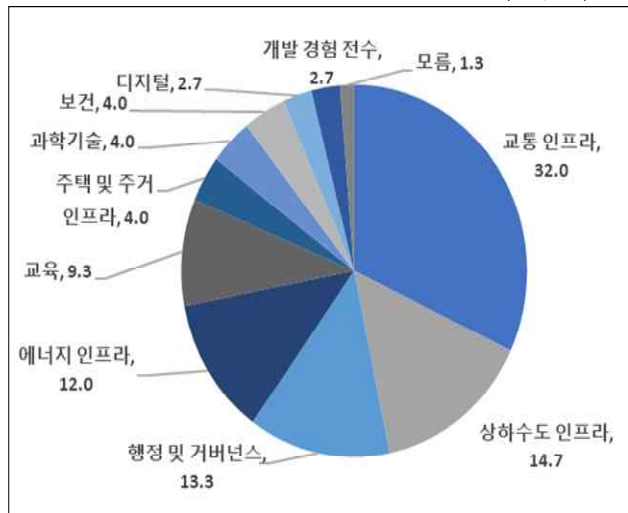
(단위: %)



주: 인도 전문가의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그림 25. 대인도 ODA 유망 분야(한국 측 응답)

(단위: %)



주: 한국 전문가의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 [문화·인적 교류] 상호간 이해를 통한 신뢰도 제고는 한·인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특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 델리 이외 첸나이와 같은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⁴¹⁾
 - 인도 내 K-pop, K-drama의 인기를 고려하여 한국제품과 연계한 현지 전시·마케팅사업 지원 강화
 - 인도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인도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인도와의 미래 관계자 본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것⁴²⁾

■ [기업 지원방안] 한·인도 기업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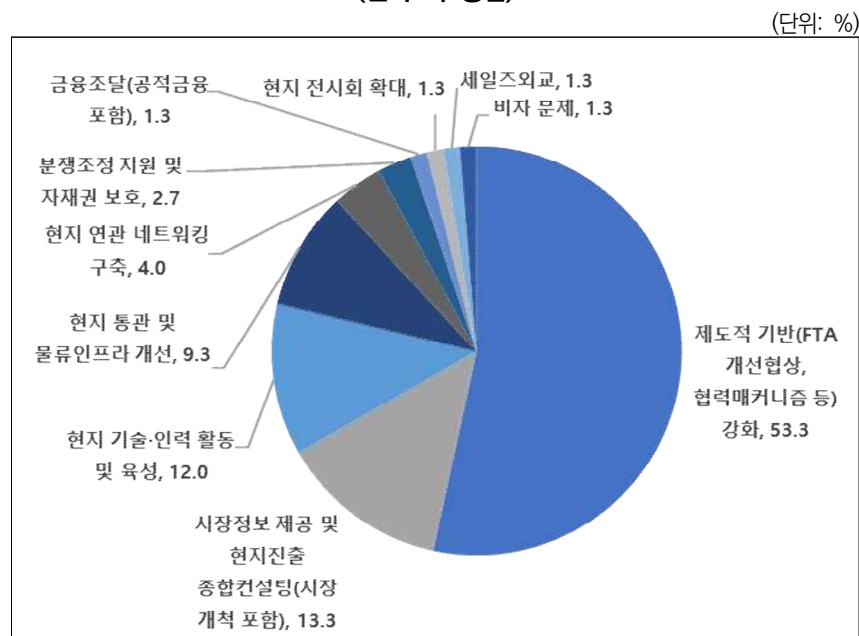
- KIEP의 한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을 비롯한 정부간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양국 경제관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한국 전문가들은 인도 진출기업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현지시장 정보 제공 및 진출 컨설팅, 현지 기술인력 활용 및 육성, 현지 통관 및 제품 인증 등을 주요 지원 분야로 꼽음.

41) 첸나는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지역이며, 문화적 개방성이 높아 한류 확산의 거점지역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됨.

42) 우리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교육, 취업, 정부 등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7년까지 외국 유학생 30만명 유치한다…취업·정주까지 지원(종합)」(2023. 8. 16), 연합뉴스(검색일: 2023. 9. 11.).

- 정보 제공은 양국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판단되며, 현지시장 정보, 주별로 다른 정책과 제도, 한국과 다른 사업 문화와 환경, 현지화를 위한 인력 및 기업 활용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가 중요하며, 특히 현지화를 위한 인도기업과의 매칭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들은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 기회 포착보다는,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KIEP**

**그림 26. 한국기업의 대인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한국 측 응답)**



주: 한국 전문가의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김정곤 외(2023, 발간 예정).

[부록]

부록 표 1.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수출입(2010, 2021)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수출		수입	
	2010	2021	2010	2021
상업서비스 합계	2,050 (100.0)	3,303 (100.0)	2,127 (100.0)	3,865 (100.0)
제조 관련 서비스	8 (0.4)	32 (1.0)	64 (3.0)	66 (1.7)
운송	1,047 (51.1)	1,467 (44.4)	365 (17.2)	475 (12.3)
여행	310 (15.1)	397 (12.0)	393 (18.5)	255 (6.6)
기타 상업서비스	685 (33.4)	1,407 (42.6)	1,304 (61.3)	3,069 (79.4)
- 건설	227 (11.1)	142 (4.3)	43 (2.0)	31 (0.8)
- 보험 및 연금	36 (1.8)	52 (1.6)	16 (0.8)	27 (0.7)
- 금융	36 (1.8)	52 (1.6)	43 (2.0)	47 (1.2)
- 지식재산 사용료	48 (2.3)	173 (5.2)	25 (1.2)	47 (1.2)
- 통신, 정보, 컴퓨터	36 (1.8)	310 (9.4)	382 (18.0)	1,232 (31.9)
- 기타 사업 서비스	245 (12.0)	597 (18.1)	783 (36.8)	1,658 (42.9)
- 개인, 문화, 레크리에이션	57 (2.8)	81 (2.5)	14 (0.7)	27 (0.7)
정부 상품 및 용역	22 (1.1)	26 (0.8)	7 (0.3)	12 (0.3)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WTO stat(자료 검색일: 2023. 12. 1.).

부록 표 2. 인도의 대한민국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인도	한국	생산 기여도	비중	인도	한국	생산 기여도	비중
1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79.7	3.0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953.6	4.5
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44.8	2.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95.5	3.8
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238.3	2.6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3.1	2.5
4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198.6	2.2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75.0	1.8
5	코크스, 석탄,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7.5	2.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51.9	1.7

주 1: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2: 특정 연도의 인도(한국) A 산업의 한국(인도) B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록 표 3. 한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생산 기여도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생산 기여도	비중
1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553.6	5.3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158. 3	4.4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13.9	4.0	1차 금속 제조업	건설업	771.2	2.9
3	1차 금속 제조업	건설업	373.2	3.6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55.6	2.8
4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4.5	3.0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2.9	2.4
5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4.3	2.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0.7	2.4

주 1: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2: 특정 연도의 인도(한국) A 산업의 한국(인도) B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록 표 4. 인도의 대한민국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10, 2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인도	한국	수출 기여도	비중	인도	한국	수출 기여도	비중
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3.1	5.5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0.6	4.7
2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6.1	3.4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0.5	4.7
3	광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0.1	3.1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24.2	4.2
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9.7	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2.6	4.0
5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7.4	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코크스, 석탄,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1.8	3.6

주 1: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2: 특정 연도의 인도(한국) A 산업의 한국(인도) B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록 표 5. 한국 대인도 상위 5개 산업 수출 기여도 추이(2010~22)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22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한국	인도	수출 기여도	비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2.7	5.2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69.9	4.6
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1	4.8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6.9	3.7
3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55.1	4.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8.9	3.5
4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9.6	4.2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6.1	3.4
5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1	3.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2.4	3.0

주 1: 비중은 전체 기여국 생산 기여액 대비 각 연계 산업 생산 기여액의 비중으로 계산됨.

2: 특정 연도의 인도(한국) A 산업의 한국(인도) B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ADB-MRIO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